

잇단 광주 도심 싱크홀 시민 불안...“지하시설 관리룰”

5년간 156건 전국 두번째로 많아 6~8월 여름철에 집중 발생 '주의' 하수관 손상·다짐 불량 등 주원인 상수도 53% 20년 이상 된 노후관 "노후·손상된 하수도관 재정비해야"

전국적으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 도심 곳곳에서 예고 없는 '싱크홀' (지반 침하)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수도관 손상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광주의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관리사무소 측은 인근 주차면 2개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낮 12시1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뒷바퀴가 빠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한 빌라 인근 도로에서도 지름 50~6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갑작스런 싱크홀 발생에 인근 주민들도



지난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불안감을 호소했다.

구모(46)씨는 "단지 내에 싱크홀이 발생해 상당히 놀랐다. 주차된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주차장에 싱크홀이 발생해 불안하다"며 "가능한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으면 한다. 요즘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모(86)씨도 "산책하다가 땅에 생긴 구멍을 확인했다. 날씨도 더운데 땅이 성질이 나버린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점점 구멍이 커지는 것 같은데 불안해 죽겠다"고 말했다.

8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지역

별 발생현황은 △경기도 244건 △광주광역시 156건 △부산광역시 134건 △서울특별시 115건 등의 순으로 광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6~8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데 △8월 234건 △7월 133건 △6월 110

건으로 여름철에 몰려있다. 싱크홀 발생의 주 원인으로서는 하수관 손상,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하수도관 손상이 전체 원인 중 45.64%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돼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 특히 오래된 상·하수관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시의 '2025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분석 결과 자연적 싱크홀보다 지하시설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싱크홀이 69.7%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광주의 상수도는 총 연장 4117km 가운데 2186km(53%)가 20년 이상 노후관이고, 30년 이상은 805km(19.5%)에 달한다. 하수도의 경우 전체 4570km 중 3006km(65%)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하수도를 정밀히 확인하고 지하시설 안전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동신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도심 내 지반 침하는 하수도관 누수로 흙이 휩쓸려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 심각하다"며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하수도관을 재정비하고 시에서도 유지 보수에 나서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광주 6월 모평 실체점 발표... 서울대, 전남대 합격선은?

사람 응시 증가, 과탐 감소 영어 1등급 비율 3배 이상 ↑ 지역 대학 계열별 기준 공개

광주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실체점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시험은 사회탐구 응시율 증가, 영어 1등급 비율 급증 등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등 총 1만932명은 지난 6월4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 응시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응시 인원이 733명 늘어난 수치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은 이번 실체점 데이터를 토대로 영역별 난이도, 선택과목 경향, 점수 분포 등을 종합 분석했다.

특히 사회탐구 선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 선택자 수는 감소해 소위 '사람 풀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어영역에서는 '화법과작문'을 택한 응시자가 72.5%에 달했고, 수학에서는 '확률과통계'가 54.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미적분'은 44.0%, '기하'는 1.7%에 그쳤다.

등급 구분 기준인 표준점수는 국어와 수학 모두 130점으로 설정됐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9.1%에 달하며 지난해 수능(6.22%)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어 '언어와매체' 최고점은 137점으로, 지난해 6월 모평과 비교해 11점 낮아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수학은 '미적분' 최고점이 143점, '기하' 140점, '확률과통계'는 136점으로 분석돼 지난해 수능 대비 높은 난이도를 보였다.

사회탐구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67~78점, 과학탐구는 65~76점 수준으로 형성됐으며,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 수학, 탐구 세 영역의 표준점수 합 600점 만

점 기준이다.

예측 지원 가능 점수로는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397점, 자연계열 396점이 지원 가능선으로 예측됐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이며, 과탐은 서로 다른 분야의 I+II 조합 기준이다. 고려대·연세대는 인문 392점, 자연 389점 선이 합격 가능선으로 분석됐다.

지역 대학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389점, 한국에너지공대(KENTECH)는 394점, 광주교육대학교는 360점 내외에서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학교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0점, 국어교육과 369점, 경영학부 360점, 정치외교학과 355점, 국어국문학과 352점, 전체 인문계열 평균은 349점 내외로 집계됐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06점, 치의예과 403점, 약학부 400점, 수의예과 399점, 전기공학과 377점, 간호학과 369점, 수학 지정학과는 340점, 미지정학과는 349점 내외였다. 노병하 기자

광주진로진학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18~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48개 대학 참여...상담부스 운영 등

전국 대학의 입시정보를 총망라하는 '광주진로진학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8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을 포함해 전국 148개 대학이 참여해 급변하는 입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심층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참여 대학이 130개였는데 비해 18개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198개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고3 학생들의 대입과 고1·2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행사 기간에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소속 대입상담교사 70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고3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다양한 진학 관련 특강도 운영된다.

18일에는 △고3 학생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대비 특강(건국대 입학사정관 이정림) △고2·3 학생을 위한 2026~2027 대입전형 특강(EBS 입시대표강사 김진석) △무전공·첨단학과·계약학과 분석 특강(경기 다산고 교사 조만기) 등이 진행된다.

이어 19일에는 △고1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 개편 달린 대입제도 특강(광주대입지원관 조정훈) △진로 맞춤형 설명회로 예체능계열 음악 특강(광주예술고 교사 문수영) △미술 특강(광주예술고 교사 안혜정) △체육 특강(경기 상현고 교사 노동기) 등이 마련됐다. 노병하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		2025. 7.18. 금 14:00~19:00 7.19. 토 09:30~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전접수 7.12. 13시부터, 선착순 마감 www.jinhakexpo.or.kr	
상담 -대학 부스 148개 운영 -11:04~14:00 예약 신청	설명회 -전국 주요 대학별 입학사정관 특강(198개 대학) -대학별 대입정보 -대학별 대입정보 -지역별 대입정보	특강 -2026~2027 대입제도 -입시예측(계열/과목)을 위한 -2028 달린 대입제도, 예	면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대비 특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대비 특강

이밖에 서울권·광주권 공동 대입 설명회,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높은 의·치·약계열 설명회(경북 순심고 교사 윤종호), 고3 학생·대학입학사정관·고교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각 대학별 입시설명회도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 1대1 수시 대입 상담, 대학별 입시설명회, 주제별 특강 등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12일 오후 1시부터 광주진로진학박람회 누리집(www.jinhakexpo.or.kr)을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단 참여자는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마감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인 진학과 꿈꾸는 미래를 설계해갈 바란다"며 "광주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구체적인 진학 로드맵을 수립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디지털 헬스 정밀조사 참여

국내 첫 디지털헬스지표 적용 호남권 대표병원으로 평가 포함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 정보기술(IT) 정밀 실태조사' 참여를 통해 스마트병원으로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8일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시스템 보유 여부를 넘어, 병원 전체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국내 최초의

정부 주도 정밀 평가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으로 이번 평가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의 '디지털헬스지표(DHI·Digital Health Indicator)'를 적용한 정밀 진단이 시작됐다. 이번 평가는 약 5개

월간 진행되며, 연말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지표는 △지배구조 및 인력 △상호 운용성 △개인 맞춤형 의료 지원 △예측 분석 등 4가지 핵심 분야에서 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밀진단을 통해 국공립대병원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디지털 투자 여건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정책적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